

샬롬 !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.
무더위는 지나갔는지요? 폭폭 찌는 한 여름은 아닌지요?

이곳은 낮에는 뜨겁고 저녁은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지난 몇 일 동안 때 아닌 비도 많이 내리는 이상기후가 계속되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해 주시는 사랑 속에 모두들 잘 지내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8 월의 선교소식 올립니다.

(8 월의 선교소식은 대부분 산돌학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)

탕가 신학교 소식;

아직 방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9 월 8 일 올해 들어 세번째 텀(term)이 시작되는데 졸업생들에게는 마지막이라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방학중인 신학교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합니다. 하지만 집이 먼 관계로 남아있는 몇몇 학생들로 인하여 적막함은 없습니다.

모든 학생들이 5 주간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학교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산돌 학교 소식(Living Stone Boy's Seminary)

이곳 교육국의 법에 따라서 산돌 학교의 실질적 교명(학교명칭)을 Living Stone Seminary 를 **Living Stone Boy's Seminary** 로 변경했습니다. 남녀 공학을 제외하고는 남,여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는 이곳 법을 따르기 위해서 입니다. 따라서 학교의 모든 서류 및 인쇄물도 바꾸었습니다. 하지만 예전처럼 LSS 로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.

1) 2013 년도 신입생 모집

지난 2 주 전부터 신년도 학생모집 광고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. 아직은 시간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어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전단지로 지역 광고를 내 보내고 있으나 이곳 elementary (primary) school 졸업시험이 끝나는 9 월 15 일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광고를 내 보내려 합니다. 광고 방법은 지역 라디오 및 국영 T.V 와 신문을 사용 할 것입니다. 하지만 광고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도 됩니다. 참고로 광고비를

알려 드립니다. 국영 T.V 1 회 (30 초 약 \$400) 국영 신문 1 회(20cm x 25cm 약 \$650) 을 지불해야 합니다. 그 외에도 다방면의 광고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
광고비용 총당은 1 인 원서비용 2 만실링(약 \$12)으로 총당하려고 합니다만 초반에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원서를 사갈지 염려가 됩니다. 따라서 선교회에서는 9 월 초부터 많은 학생들이 산돌 학교에 지원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.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1 학년 120 명 2 학년 약 20 명 정도 이며, 입학시험은 10 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.

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9 월 달 선교소식과 전화 등을 통하여 중간소식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
2) 산돌 학교 차량 구입

학교 개교 때부터 시작한 기도 제목입니다. 시간이 갈 수록 차량의 필요성을 더욱 느낍니다.

현재 박선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10 인승 승합차 한대로 양쪽(신학교 포함) 사역지의 필요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. 간간히 아이들이 아플 때 승합차와 학교 교무주임 선생님의 오토바이에 태워(박목사 출타시에)서 병원에 데려가곤 하는데 아픈 아이들이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가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. 그 밖에도 학교 행사(견학을 위한 여행/방학 때 버스정류장까지 운송)때에는 박목사 승합차와 공사용 트럭을 사용하는데 트럭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될 뿐 아니라 위험하여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. 산돌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제목이 '최선 다하여 훌륭한 학교로 만드는 것'인데 차량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

기도하고 있는 미니버스(25 - 30 인승)의 가격은 약 \$30,000.이며 7-8 년 사용한 중고차입니다.

3) 컴퓨터 전문 선교사

내년 1 월부터 윤여환 목사님 부부가 컴퓨터 전문선교사로 함께 일 하기 위하여 서류 중에 있습니다. 윤여환 목사님은 한국의 서울 기독교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국제경영학(석사)을 전공한 후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(박선교사 파송교회)에서 사역했습니다. 산돌 학교와 탕가 신학교의 미래를 내다볼 때 컴퓨터 사역은 다른 어떤 사역 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입니다. 따라서 비자 관계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. 또한 앞으로는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단기

선교를 제외한 장기 선교사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역자로만 허락 할 예정이오니
선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4) 의료 및 산돌 학교 영어 단기선교

9 월 10 일 부터 약 1 주간 와싱턴 한인교회의 의료 단기선교 팀이 탕가지역을
방문합니다.

이 선교행사는 매년 와싱턴 한인교회(담임 김영봉 목사님)에서 행하는 중요한 행사인데
지난 2 년동안(교회의 사정과 박선교사 가정의 일로)쉬었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이
되고, 지역사회에 잊을 수 없는 도움이 되며, 팀원들과 교회에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
선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. 이번 사역은 의료와 영어 사역으로
나누어 진행될 것입니다.

5) 한국에서 보낸 컨테이너 소식

아직 도착하지 아니했습니다. 하지만 세금 면제 서류는 다 갖추어서 작업 중에
있습니다. 컨테이너 도착 예정은 9 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. 도착 후 빨리 찾을 수
있도록(비용 포함) 기도 부탁 드립니다.

간간히 선교지 소식을 보낼 때 마다 마음의 부담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.

하지만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은
지난 17 년 동안 그
렇게 역사하셨거든요.

한결 같은 사랑, 한결 같은 긍정적인 믿음, 그리고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
섬기시는 우리 선교회 모든 식구들이 자랑스럽습니다.

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(Mungu awabariki)

탄자니아 탕가에서 박윤석 선교사 드림.